

경쟁력 저하의 주범은 누구인가?



황 장 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국장

여타의 축산분야가 그러하지만 현재 낙농산업도 수입개방으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95년부터 대부분의 유제품이 수입자 유향되어 낙농가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넘쳐나는 분유재고로 급기야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우리 낙농여건이 열악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이 근본원인이다. 그러나 경쟁력 저위만으로 지금의 현상을 모조리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쟁력 척차 이상으로 우리의 낙농산업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DOP검출 파동, 낙농진흥법 등 제도정비 미비, 유가공업체에 대한 견제장치 전무 등 정부와 축협중앙

회가 생산자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분유재고 상황을 불러온 진짜 이유이다.

우선 DOP검출 논쟁은 가공업무 이원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은 신설 조직으로 조직강화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유무해논쟁을 유포하여 우리 축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광우병 파동, 0-157 파동 등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받은 피해가 얼마인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까지 조직이기주의를 내세우며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에 반대하고 나선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조직이기주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낙농진흥법 개정이 계속 무산되고 있는 것도 낙농가의 피해를 더욱 크게하고 있다. 집유일원화, 낙농전문조합 설치 등 생산자조직의 결성을 통한 교섭력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축협중앙회, 일부 집유조합 등의 이기주의로 전체 낙농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유업체의 상도의에 어긋나는 횡포도 한국 낙농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국내산 분유재고가 한때 1만5천톤을 넘는 상황에서도 유업체들은 모조분유를 수입하여 수익올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관세가 높은 분유를 대체해서 값싸고 관세가 적

은 모조분유를 수입하여, 분유, 이 유식, 나아가 이른바 고급유라는 가공유에 이르는 거의 모든 유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고급화, 신상품 등을 이유로 소비 감소 추세임에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의 유제품과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94년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등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감독기구 소홀, 정책의지의 박약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낙농가만 경쟁력을 갖추라고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다. 가격인상, 집유거부, 저질 원료수입 등으로 손쉽게 이익을 확보하는 유업체는 도산되어야 하고,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낙농진흥법 개정을 반대하는 축협중앙회 등도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농림부가 이 모든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은 낙농가가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 낙농관련 기구나 업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